

무용예술의 시작, 그러나 연습실이 없다

박성혜 무용평론가

culture | art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이외의 간접 지원의 형태인 공간 제공을 꼽을 수 있겠다. 무용은 장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작업이 많고 또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무용가들을 위한 지원의 또 다른 형태로 연습실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 지원이다.

우리는 연습실을 갖고 싶다

1년 동안 수백 개의 무용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무용공연 풍토 속에 있다 보면 무용 공연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리고 그 많은 공연들이 각종 지원금과 혹은 무용가 개인의 자비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무용공연이야말로 순수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르가 아닐까 싶다. 작품의 보전성이 낮아 소장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요, 그 흔한 음반이나 영상으로 상품성이 있지도 않기에 경제적 가치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술 사랑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원금과 여타의 다양한 후원은 가난한 무용예술인들에게 결정적 도움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도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금들이 내용과 규모 면에서 다양해지고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금은 다른 형태의 지원 모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꼽고 싶은 것이 바로 공간 제공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창작활동 및 제반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실과 기타 부대시설이 가능한 공간 제공을 뜻하는데, 금전적인 1차적이고도 직접적 지원 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종의 변화된 지원 형태다. 사실 창작 일선에 있는 가난한 무용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면 지원의 내용과 형태가 무한하겠지만 무용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연습 공간 부족이다.

실질적으로 지원금 신청시 작품 제작의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소요 경비, 예를 들어 의상, 무대미술, 인건비, 극장 대관료, 심지어 홍보를 위한 기본적인 인

무용단을 운영하려면 연습실 이외에도 무용단 관리와 기획, 홍보를 위한 사무실과 단원들의 후생과 복지 관련 시설인 탈의실과 샤워실, 휴게실 등이 필요하며 무대의상과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무용단 중 이 모든 곳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Warehouse

쇄비조차 산출해 신청을 하지만 막상 연습실 사용과 그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아마도 무용단의 물리적 근거지가 기본적으로 연습실이라는 통념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사고들은 이론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옳고 타당한 기준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이러한 기본적 조건을 갖추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열악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

극단적으로 표현해 국내에는 두 종류의 무용가가 있다. 대학교수인 무용가와 그렇지 않은 무용가다. 직업이 대학교수인 무용가인 경우에는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신분 외에도 현실적으로도 창작 일선에서 여러 이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연습실이다.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습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자신 혹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무용단체를 위해 사용한다. 간혹 같은 대학 내의 무용과 교수들 사이에서 과도하게 이용될 경우, 시간적 공간적 부족으로 인해 외부의 다른 공간을 간혹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이고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정규 수업시간 외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연습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무용과 교수, 혹은 무용실이 정식으로 갖추어진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는 무용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실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일차적 특혜를 받는 부러운 존재다. 여기에 자체적인 연습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립과 도립, 국립의 무용단과 유니버설발레단과 같은 전문 단체 몇몇이 있다.

하지만 이외의 단체와 개인들은 엄밀히 말해 연습실이

없다. 그들이 궁색하게 소개하는 연습실의 실체는 사실 생계를 위해 레슨을 하는 무용 교습소요, 변형된 학원이다. 설혹 연습실이라도 연습실 운영비와 임대료 등을 위해 간헐적인 레슨과 다른 무용가에게 레슨이나 연습을 위해 재임대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무용가에게 순수한 창작만을 위한 연습실은 부재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한 밥벌이의 대안으로서의 무용 레슨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 곳이 바로 무용 연습실의 현주소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실의 활용 내용을 근거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연습실이 있어도 문제다

국내 무용단 중 프로단체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 우선 한국무용가 김매자 씨가 이끌고 있는 '창무회'의 경우, 비싼 건물 임대료를 물면서 무용단을 상주시키는 전형적인 단체다(마포구 창전동 소재). 하지만 '창무회' 역시 단원들의 급여와 임대료 충당을 위해 정규 연습시간 외의 다른 시간을 무용 레슨에 할애하고 있다. '창무회'가 직접 관여하는 레슨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용가에게 재임대되거나 단원들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현대무용가 홍승엽 씨가 이끌고 있는 '댄스시어터 온'(광진구 능동 소재), 한국무용가 국수호의 '디딤무용단'(송파구 잠실동 소재) 등도 자체적인 연습실 공간은 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안무가 개인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주하는 직원을 두고 기획과 홍보

를 전담하게 한다든지, 단원들의 급여와 복지, 심지어 무용 연습을 위한 기본적 환경인 탈의와 샤워시설도 미비하여 창작 일선에서 있는 무용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연습실 환경을 개선한 곳이 '서울발레시어터' 정도다. 현재 과천시 소재 과천시설관리공단에 입주한 상태인 '서울발레시어터'의 경우, 연습실을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발레단 사무실과 부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사무실의 경우 입주계약을 맺어 월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획공연 역시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어 수익을 공단 측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단원들의 급여나 작품 제작비, 운영비 등은 고스란히 발레단 측 부담이라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독자적인 연습실을 가지고 있어도 안무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곤란은 창작활동의 여부를 떠나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연습실을 폐쇄한다면 단순히 무용단의 결속력 약화를 떠나 언제나 준비된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용수로서의 기본이자 특성을 잃게 된다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때문에 대학교수가 아닌 대부분의 무용가들은 연습실이라는 공간 확보를 위해 자신의 재정적 출혈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의 또 다른 형태

이러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이외의 간접 지원의 형태인 공간 제공을 꼽을 수 있겠다. 무용은 장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작업이 많고 또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한 시설비가 들지 않아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무용가들을 위한 지원의 또 다른 형태로 연습실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 지원이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극장에 포함되어 있는 연습실과 부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했으면 한다. 가령 서울과 인접 지역의 기존 극장은 물론 최근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성남 문화예술의전당, 일산 아람누리극장, 덕양 어울림누리극장 등지의 신설극장들

에 신설단체 설립, 혹은 비어 있는 연습실과 그에 상응하는 공간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예술가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과천 시설관리공단처럼 서울발레시어터에게 무상으로 연습실을 제공하고 공동 기획을 한다든지, 좀더 나아가 제작지원과 재정적 도움을 주면서 이윤을 함께 나누는 형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도시와 극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경우, 20여 개의 도시에 극장을 중심으로 국립무용센터(CCN, Centre Choregraphique National)를 운영하면서 현대무용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 무용가 마기 마랭, 조제프 나주, 앙줄랭 프렐조카쥬, 마틸드 모니에, 필립 드쿠플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얼마 전 내한했던 무용가 모리스 베자르를 스위스 로잔시가 후원한다든지, 세계적인 안무가인 피나 바우쉬는 독일의 부퍼탈 시에서 수십 년씩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의 경우와는 다소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존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 하에서 도시와 극장 중심으로 무용가들을 후원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중 가장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공간 제공이며, 국내의 비슷한 사례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서울발레시어터'가 있다. 하지만 '서울발레시어터'의 경우 단순한 연습실 제공에만 머물렀는데 보다 일보 전진한다면 연습실 외의 부대시설 제공과 제작비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발레시어터'의 김인희 단장 역시, "현재의 입주계획에서 보다 진일보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인 제작비 지원, 단원 급여 및 운영비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보다 다양한 공간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듯이 연습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뒤따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무용가들 중에 이미 검증되고 성장 가능성 높은 무용가들을 양성하여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 중 공간 제공은 무용가와 해당 단체에게는 작품 제작비 지원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주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서울발레시어터 홈페이지

부대시설 공간 확보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서울발레시어터'의 경우, 제반 시설과 예술가의 바람직한 만남 중 대표적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국내 상황에서 지극히 상대적 평가 결과의 바람직한 예로 분류되었지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중 하나가 연습실 이외의 부대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무용단을 운영하려면 연습실 이외에도 무용단 관리와 기획, 홍보를 위한 사무실과 단원들의 후생과 복지 관련 시설인 탈의실과 샤워실, 휴게실 등이 필요하며 무대의상과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무용단 중 이 모든 곳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국내 무용계에서 규모나 인지도, 그리고 활동에 있어 최고라 할 수 있는 국립단체들의 경우를 보자. 우선 국립발레단의 경우 현재 예술의전당에 상주해 있어 연습실과 사무실, 탈의실 정도는 해소되고 있지만 물품 보관소인 창고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의전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물품들은 현재 전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립무용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경우는 그래도 숨통이 겨우 트인 경우다. 국립극장과 리틀엔젤스예술회관 내의 비교적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 부족으로 인해 일단 폐기와 공연시 다시 제작이라는 폐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단체는 국내에 그리 많지가 않다.

탈의실과 사무실

연습실과 더불어 탈의실과 사무실은 무용단이 필요한 공간 중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하지만 이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워 연습실 한구석에 누추하게 마련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실무자들이 상주하기가 힘들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사무실 업무를 아예 외근을 하거나 심지어 무용가 개인 거주지인 자택에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용가들의 명함을 보면 상당수가 연락처를 자신의 자택(혹은 학교)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 업무 대부분을 자택(혹은 학교)에서 처리한다.

이러한 폐단으로 말미암아 국내는 물론 외국과의 업무에 기동력과 정확성이 떨어져 피해를 입고 있고 그 1차적 피해는 다시 무용가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원들의 복지와 후생은 국내 현실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창고

무용 창작활동의 소모적 성향을 가장 크게 부채질하고 있는 결정적 요소가 바로 창고 문제다. 보관할 수 없는 무대 소품과 의상은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폐기되었다가 공연시 다시 제작된다.

개인 창고는 꿈도 꿀 수 없고 서울 외곽의 저렴한 사설 창고 역시 한 달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기에 몇천만 원 들여 제작한 의상과 소품들이 공연과 함께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고를 잘만 활용해도 그 안에 보관된 의상 및 소품을 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부대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과 보관된 공연 관련 물품을 이용한 전시 행사는 교육과 홍보 사업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틀엔젤스예술회관

국내에서도 건물 짓고 그에 따른 부속단체 신설, 혹은 가까운 공간의 방치보다는 기존의 예술가의 활용이 어찌보면 더더욱 경제적이고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윈윈(Win-Win)정책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지방 극장의 경우, 서울로만 집중되어 있는 예술활동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Warehouse

하고 국시립 단체에서는 인식 부족과 극장 설계시 안배 부족 등을 이유로 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문제 때문에 창고 마련이 어려워 힘들게 마련한 재원으로 제작한 의상과 무대 미술들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무용가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창고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한다.

단체 만들기보다 육성으로

최근 여러 지자체 중심으로 많은 극장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 그 화려함과 규모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크고도 화려한 극장에 무엇을 채워 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문화적 인프라 구성이 과연 극장 중심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일고 있다. 즉 건물은 있지만 내용과 형식면에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에 나온 의견들이다.

이에 대해 기존 예술가들을 극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방안의 하나로 극장 내에서의 다양한 공간 제공을 든다. 무용의 경우, 검증되고 어느 정도 인지도까지 갖춘 무용가를 극장 내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상주시켜 함께 기획하고 공연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독일 부퍼탈의 피나 바우쉬 무용단의 경우,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 부퍼탈에서 항상 자신의

작품을 초연한다. 덕분에 피나 바우쉬 팬들은 그녀가 초연 공연을 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부퍼탈이라는 작은 도시로 향한다. 그 덕에 초연 공연 때는 부퍼탈 시내의 호텔방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해당도시 경제에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퍼탈이라는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1등 공신이 피나 바우쉬라는 점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세계적 안무가 한 명이 발휘하는 무상의 가치는 무한하다.

국내에서도 건물 짓고 그에 따른 부속단체 신설, 혹은 가까운 공간의 방치보다는 기존의 예술가의 활용이 어찌 보면 더더욱 경제적이고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윈윈(Win-Win)정책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지방 극장의 경우, 서울로만 집중되어 있는 예술활동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가령 이미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무용가를 상주시키고 지원한다면 해당극장의 인지도 상승과 프로그램 확보가 동시에 해결된다.

이외에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지원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의 자발적 지원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며 지원의 형태 역시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내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연습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의 공간 제공이라는 유형의 지원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